

혼종적 정체성과 혼종적 언어 번역하기:
*Memories of My Ghost Brother*와 *Fugitive Visions*를
중심으로*

한미애** · 조의연***
(동국대_서울)

1. 서론

세계화와 다문화로 인해 정체성은 복잡적이고 혼종적일 수 있다. 혼종성 (hybridity)은 바바(Bhabha 1994)가 후기식민주의 담론에서 발전시킨 개념으로, 식민지의 피지배자들이 지배자의 언어로 담론을 하면서 “지배자의 권력과 지배 문화를 전복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Farahzad and Monfared 2010). 싱 (Singh 2009)에 따르면, 혼종성이라는 개념은 점차 확대되어 후기식민주의 문학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6S1A5B5A07921075]

** 한미애(제1저자)

*** 조의연(교신저자)

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작가들이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 간의 균형을 꾀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혼종성이라는 개념은 섞여있다는 의미로 쓰이며, 번역학 연구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스넬 혼비(Snell-Hornby 2006: 99)는 문학적 혼종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후기식민주의 문학 뿐 아니라 다문화 사회의 문학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언급한다. 새프너와 아다브(Schäffner and Adab 2001: 169)는 여러 문화와 언어가 접촉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유엔 문서나 번역 텍스트에서 볼 수 있는 혼종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여러 문화의 접촉으로 일어나는 혼종적 정체성은 혼종적 언어 사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언어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완벽한 표지”(Wardhaugh 2006: 6)이며 “사회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사회적 집단은 그 사람에게 중요한 정체성 집단”(김재원 외 옮김 2001: 83)이기 때문이다. 현실을 반영하는 문학 텍스트에서는 이러한 혼종적 정체성과 혼종적 언어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혼종적인 언어 현상에는 코드 스위칭(code-switching)이나 피진(pidgin) 등이 있다. 워드허프(Wardhaugh 2006: 88)에 따르면, 코드 스위칭에서 코드는 언어를 나타내는 중립적인 용어이다. 코드 스위칭은 이중 언어 사용자나 다언어 사용자가 한 언어를 사용하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말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족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지의 역할을 할 수 있고(101), 권력에 대한 저항을 드러내는 정치적 표현일 수도 있으며 결속력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103). 영어와 스페인어의 코드 스위칭 예를 들면 “No van a bring it up in the meeting”가 있다(108). 이 문장의 의미는 They’re not going to bring it up in the meeting이다. 스페인어 No van a를 말한 다음 나머지는 영어로 말한 형태이다.

한편, 피진 언어는 두 언어가 접촉하여 두 언어가 섞여서 생성된 새로운 형태의 말이다. 영어 Cinderella와 일본어 san이 섞인 Cinderella-san를 예로 들 수 있다. 피진 언어는 언어 간의 힘이 불균형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즉, 한 언어를 말하는 화자가 다른 언어를 말하는 화자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을 때 자주 발생하게 된다(Wardhaugh 2006: 61).¹⁾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코드 스위칭과 피진은 한 언어를 다른 한

언어로 번역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천 언어는 두 언어가 혼종적으로 사용되지만 번역 언어는 단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먼데이(Munday)도 문학번역가들은 저자의 단일한 목소리만을 텍스트에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Munday 2008: 17). 원천 텍스트의 혼종적인 언어가 목표 텍스트에서 지워짐으로써 문학적 장치 및 특성 등이 사라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원천 텍스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 즉, 서술자나 등장인물의 혼종적인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코드 스위칭이나 피진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혼종적인 언어도 번역의 대상이다. 이러한 혼종적인 언어를 번역하려면 번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텍스트에 번역가의 목소리를 드러내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술자나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혼종적인 정체성이 혼종적인 언어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가를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혼종적인 언어가 한 목표 텍스트에서는 상실되었고 한 목표 텍스트에서는 보존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궁극적으로 본고에서는 혼종적인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혼종적인 언어를 어떻게 번역하였는지 고찰하고, 코드 스위칭 등의 혼종적인 언어는 미학적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장치이며 이러한 특성을 번역하기 위해 번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 텍스트는 한국계 미국소설 중 혼종적인 정체성으로 인해 다언어사용이 많이 나타나는 텍스트로 제한한다. 혼종적인 정체성은 한국계 미국 작가들이 많이 다루는 주제이다. 작가 자신이 경험한 갈등과 혼란을 바탕으로 일인칭 서술자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한다. 원천 텍스트는 하인즈 인수 펜클(Heinz Insu Fenkl)의 장편소설 *Memories of My Ghost Brother*(1996)와 제인 정 트렌카(Jane Jeong Trenka)의 장편소설 *Fugitive Visions: an Adoptee's Return to Korea*(2009)이다. 해당 목표 텍스트는 각각 문상화가 번역한 『고스트 브라더』(2005)와 이일수가 번역한 『덧없는 환영들』(2013)이다. *Memories of My Ghost Brother*의 서술자는 독일계 미국인과 한국인의 혼혈아로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

1) 피진은 원래 유럽에서 노예를 거래할 때 언어가 서로 다른 노예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예상들이 두 언어를 단순화하여 결합된 형태로 사용한 것이다. 피진 언어나 코드 스위칭은 언어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Wardhaugh(2006)의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3장과 4장 참조.

며, *Fugitive Visions*의 서술자는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다시 한국에서 거주하려고 하면서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2. 선행연구

기존에 번역학에서 주로 논의된 바는 한 언어·문화를 다른 언어·문화로 번역하는 단일 언어 간 번역이었다. 즉, 영한번역처럼 낯선 언어·문화를 우리 언어·문화로 가지고 오거나, 한영번역처럼 우리 언어·문화를 외래 언어·문화로 내보낼 때 일어나는 번역 현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세계화나 이민 등의 영향으로 원천 텍스트에 혼종적인 언어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Shafiq 2006, Noussi 2009, Meylaerts 2013)는 주로 탈식민주의 문화번역 측면에서 혼종적인 언어 현상이 연구되고 있기는 하지만 원천 텍스트에만 제한되어 있다.

한국계 미국소설에서의 혼종성과 관련된 번역 연구에는 한미애(2014)가 있다. 이 연구는 꽃신이나 동짓날 등 한국적 소재를 영어로 쓴 김용익의 단편소설과 김용익이 직접 자가번역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혼종적 언어를 분석했다. 여기서 혼종적 언어란 영어 원천 텍스트에서 “inside guest”처럼 한국식 영어로 표현되거나 한국어 목표 텍스트에서 “초가들은 젊고”처럼 영어식 한국어로 표현되는 현상을 말한다.²⁾ 따라서 코드 스위칭이나 피진 등처럼 다언어 차원에서 야기되는 혼종성은 아니다.

목표 텍스트에서 코드 스위칭 등의 다언어와 관련된 혼종적 언어 연구는 다음과 같다. 찬(Chan 2002)은 원천 텍스트가 이중언어(bilinguality)로 쓰인 경우 한 언어를 다른 한 언어로 번역한다는 번역 개념에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한다. 델라바스티타(Delabastita)와 그루트만(Grutman 2005)은 다언어와 관련한 번역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지만 텍스트에서 코드 스위칭을 분석하지는 않는다. 비스카이노(Vizcaino 2005)는 멕시코계 미국소설 번역에서, 반디아

2) “inside guest”는 안손님[아내의 손님]을 일대일 대응한 한국식 영어이다. “초가들은 젊고”는 “roofs are young”을 일대일 대응한 영어식 한국어이다.

(Bandia 2008)와 선영아(2015)는 각각 아프리카의 탈식민지 문학 번역에서, 아르시아(Arcia 2012)는 칠레계 캐나다 문학 번역에서 각각 코드 스위칭 번역의 미학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코드 스위칭을 세분화하거나 번역가가 개입하는 측면에서 번역의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

특히 비스카이노(2005)는 코드 스위칭은 화용적 기능을 지니고 서술의 관점 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번역해야 한다고 제기한다. 따라서 코드 스위칭을 번역하려면 우선적으로 원천 텍스트를 화용언어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클링거(Klinger 2015)는 언어적 혼종성을 서사적 차원에서 자유간접화법이나 차용어 등으로 여기고 코드 스위칭은 의미 형성이나 서술자의 세계관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클링거와 달리 우리는, 코드 스위칭은 서술자의 세계관이나 정체성이 코드 스위칭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문학적 특성을 강조하므로 번역에서 보존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코드 스위칭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번역된 사례를 분석하며, 혼종성을 살리기 위해 번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3. 절충적 접근 및 사회언어학적 분석

접근방식은 크리스폴리(Crisafulli 2002)가 제시한 절충적 방식을 취한다. 즉, 기술적-경험적 접근방식과 비판적-해석적 접근방식을 절충한다. 텍스트의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혼종적인 정체성과 혼종적인 언어사용과의 상관관계를 기술한다는 점에서는 경험적-기술적 방법이다. 하지만 기술적 방법처럼 규범이나 규칙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번역가가 전략적으로 텍스트에 개입하여 번역가의 목소리가 텍스트에 드러난 현상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비판적-해석적 방법이다.

우선 원천 텍스트 *Memories of My Ghost Brother*와 *Fugitive Visions*에 나타난 혼종적인 정체성이 어떻게 혼종적인 언어 사용으로 재현되는지 분석한 다음 목표 텍스트와 각각 비교 분석할 것이다.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의 비교 방법을 통해 번역가가 어느 상황에서 개입을 하여 번역가의 목소리가 드러났는지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 다음 목표 텍스트 『고스트 브라더』와 『덧없는 환영들』의 번역 전략을 비교해볼 것이다. 동일한 원천 텍스트의 목표 텍스트 여러 개를 비교해 보면 번역 양상간의 차이를 볼 수 있지만, 해당 목표 텍스트는 각각 한 종류만 존재하므로 두 목표 텍스트의 번역양상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번역가의 개입양상과 번역가의 목소리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논의할 것이다.

텍스트의 분석 대상으로 삼은 코드 스위칭과 피진은 사회언어학적 분석이다. 코드 스위칭과 피진은 어느 한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변이 형태이다.

마블(Mabule 2015: 340)에 따르면, 코드 스위칭은 문장간 코드 스위칭(intersentential code switching), 문장내 코드 스위칭(intrasentential code switching), 문장의 코드 스위칭(extra-sentential code switching)으로 나뉜다. ‘문장간 코드 스위칭’은 한 언어로 한 문장을 말한 다음 다른 언어로 다른 문장을 말하는 것이다. ‘문장내 코드 스위칭’은 한 문장 내에서 한 언어로 이야기하다가 다른 언어로 바꾸어 이야기하는 것이다. ‘문장의 코드 스위칭’은 한 언어로 문장을 말한 다음 끝 부분에 ‘그렇지’와 같은 부가적 표현을 다른 언어로 하는 것이다.

코드 스위칭은 서술자나 등장인물의 정체성 또는 사회적, 경제적 특징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독자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 독자가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Black 2006: 89-90). 피진사용(pidginization)은 문학에서 언어를 재구성하는 극단적인 예로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피진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피진이 색다른 현상이라는 관점은 단일 언어 사회의 부산물일 수 있다. 피진은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두 집단 간의 제약된 의사소통을 위해 생겨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인 것이다(Coulmas 1998: 168).

다음 장에서는 코드 스위칭 세 종류와 피진 등을 기반으로 하여 원천 텍스트(ST)와 목표 텍스트(TT)를 비교 분석한다.

4. 텍스트 비교 분석

4.1 *Memories of My Ghost Brother*와 『고스트 브라더』

*Memories of My Ghost Brother*에서 서술자인 ‘나’ 하인즈 인수 펜클은 한국계 미국인이다. 작가는 자신의 실제 이름을 소설에서 사용하였다. 아버지는 독일계 미국 군인이며 어머니는 한국인이다. ‘나’는 한국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생각하지만 외모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한다.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가기 위해 미군기지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게 되는데, 한국어를 사용해서 야단 맞기도 한다. 또한 아버지에게 독일식 발음으로 영어를 배우면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다. 이러한 서술자의 혼종적인 정체성은 코드 스위칭의 세 가지 형태와 피진 등을 통해 표현된다.

4.1.1 코드 스위칭

4.1.1.1 문장내 코드 스위칭

문장내 코드 스위칭은 한국계 미국문학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영어로 서술하거나 대화하다가 한국 어휘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Memories of My Ghost Brother*에서도 문장내 코드 스위칭은 페이지마다 네다섯 개 이상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 중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she had the skin of a *sangnom*, a commoner.
- (2) “What does that talk, *injong*, mean?” “It means you have to be a kind person and think of others.”
- (3) I went to the red clay *chang* pots
- (4) “*Nuna*, why are you crying?”

(1)은 ‘상놈’을 로마자 *sangnom*로 표기하고 영어 *commoner*로 의미역을 해 준 경우이다. (2)는 ‘인정’을 로마자 *injong*으로 표기하고 문맥 안에서 *you have to be a kind person and think of others*로 설명을 해주는 경우이다. (3)과 (4)는 한국어에 대한 의미역이나 설명 없이 로마자 *chang*이나 *nuna*로만 표기한 경우

이다. (1)과 (2)는 한국어를 모르는 영미권 독자에게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만 (3)과 (4)는 *chang*이나 *nuna*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 한국어를 아는 독자만 그 의미를 알 수 있으므로 (3)과 (4)의 경우는 반언어(antilanguage)로 볼 수 있다.

반언어는 할러데이(Halliday 1978)가 제의한 용어로, 같은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 없는 낱말이나 은어, 암호 등을 말한다. 반언어는 일반 언어처럼 의사소통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같은 집단 구성원 간의 결속력이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사회에 저항하는 것을 반사회적이라고 하듯이, 언어에 저항하는 것을 반언어라고 할러데이는 설명한다. 따라서 한국계 미국작가들이 영어로 서술하면서 의미 풀이 없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 역시 반언어의 형태로 볼 수 있겠다.

영어와 한국어의 코드 스위칭은 ST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TT에서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야 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예문을 『고스트 브라더』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엄마 피부가 상놈 피부라고
- (2) “인정이 뭐야?”
“착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 (3) 장독대로 갔더니
- (4) “누나, 왜 울어?”

TT에서는 마치 한국인 서술자가 한국인 독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듯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창하다. 이로써 ST의 서술자가 독자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즉,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혼종적인 정체성이나 같은 민족끼리 공유할 수 있는 유대감 등이 전경화 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인만이 가지는 정서나 문화를 영어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반언어의 저항의식도 TT의 (3')과 (4')에서는 사라졌다. 코드 스위칭을 반영하려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서는 5장 번역양상에서 논의하겠다.

4.1.1.2 문장간 코드 스위칭, 문장의 코드 스위칭

문장간·문장의 코드 스위칭은 서술자인 인수와 독일계 미국인인 인수 아버

지와의 대화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한국말만 하고 영어를 못 하는 인수에게 인수 아버지는 영어를 가르쳐준다. 인수 아버지는 인수와 대화할 때 (5), (6)처럼 문득 독일어로 말을 하기도 한다.

- (5) “*Genug, mein Heinzchen, genug, genug,*” he said after a while.
 “*Wirmussen nicht*—we shouldn’t get too sad.”
 (6) “...you just saw him like he was your brother, *nicht wahr?*”

(5)의 형태는 영어 문장으로 이야기 하다가 독일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문장간 코드 스위칭의 형태이다. 첫 번째 문장 *Genug, mein Heinzchen, genug, genug*은 독일어만 표기되어 있어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반언어의 형태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두 번째 문장은 독일어 *Wirmussen nicht*의 의미를 영어로 we shouldn’t get too sad라고 설명해주고 있다. (6)의 형태는 영어로 이야기 하다가 뒤에 부가의문문에 해당하는 *nicht wahr*만 독일어로 이야기한 문장의 코드 스위칭의 형태이다.

- (5*) “괜찮아, 하인즈,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잠시 후에 말했다.
 “울면 안돼. 너무 슬퍼하면 안 되는 거야.”
 (6*) “너한테 네 형처럼 보이는 거야.”

(5*)와 (6*)은 앞의 문장내 코드 스위칭의 번역처럼, 다국어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단일 언어로만 번역되어 있다. 특히 (6*)에서는 *nicht wahr* [isn't it so]의 번역이 생략되어 있다. 독일계 미국인인 아버지는 아들을 부를 때 ‘인수’라고 하는 대신 독일식 이름인 하인즈라고 부른다. 또 아버지는 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독일어로 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장간 코드 스위칭과 문장외 코드 스위칭에서 아버지와 아들만이 지닐 수 있는 유대감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TT에는 이러한 유대감이 번역되지 않아 언어전환의 기능인 표현적 기능과 교감적 기능이 함께 반영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펠과 무이스켄(Appel and Muysken 2005: 119)도 언급했듯이, 언어전환 현상은 혼합된 정체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대화에서 어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역

함을 함으로써 교감적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TT에서는 아들과 아버지들이지만 공유할 수 있는 교감이 사라진 셈이다.

4.1.2 피진 및 기타

피진을 통해 혼종적인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고 시간적, 공간적 배경도 나타낼 수 있다. 소설의 배경이 한국전쟁 직후이고 기지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므로 미군들이 사용하는 피진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피진의 형태는 영어와 일본어가 혼합되거나 영어와 한국어가 혼합된 형태이다.

영어와 일본어가 혼합된 피진으로 *baby-san*, *mama-san*, *boy-san* 등을 찾아볼 수 있다. *san*은 ‘...씨’에 해당되는 일본어로 저자가 만든 용어해설집에 *GI pidgin*으로 설명되어 있다.³⁾ GI 피진은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군들이 사용한 피진이다. 이러한 피진의 형태는 TT에서도 반영이 되어, ‘베이비상, 마마상, 보이상’ 등으로 번역이 되었다. 피진을 통해 개개인의 정체성 뿐 아니라 시대적, 공간적 배경을 암시했다고 볼 수 있다.

영어와 한국어가 혼합된 피진으로는 *hamaburgers*, *chajidogs* 등이 있다. 이 어휘는 목표텍스트에서 피진의 형태가 반영되어 ‘하마버거’, ‘자지도그’로 번역되었다.

혼종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혼종적인 언어로, 코드 스위칭이나 피진 현상 이외에도 독특한 표현 *mahmi*가 관찰되었다. 어린 시절 인수는 엄마를 늘 *mahmi*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은 페이지마다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 중 한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7) ST: “Hey, you talk American good-good,” he said. “This kid yours, baby-san?” “My son,” said Mahmi. (P13)

*mahmi*는 영어 사전이나 독어 사전에 나오지 않는 어휘이다. 엄마를 나타내는 *mammy*(영어)나 *mami*(독어)에 독어 발음 ‘호’를 강조하기 위해 *h*를 첨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음성적 차원의 언어 혼종이 일어난 현상을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인수는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학교에서는 영어를 배우고 아

3) 용어해설집은 <http://heinzinsufenkl.net/gloss.html> 참조.

빠에게는 가끔 독일어를 배우므로 여러 언어 접촉에서 어린 인수가 느꼈을 혼종적인 정체성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이 어느 집단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언어 현상인 반면, *mahmi*는 작가 개인이 사용한 개인어(idiolect)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독특한 개인어는 번역할 때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번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7) TT: “헤이, 영어 참 잘하네! 이 아이도 당신 아이예요, 베이비 상?”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다.
 “내 아들이야.” (P24)

위의 인용문 이외에도 *mahmi*는 모두 목표 텍스트에는 엄마로 번역되어 있다. 따라서 혼종성을 나타내는 특이하고 유표적인 표현은 TT에서 일반적이며 무표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4.2 *Fugitive Visions*과 『덧없는 환영들』

*Fugitive Visions*의 서술자 ‘나’는 어렸을 적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계 미국인이다. 생모와 연락이 닿아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에서 살려고 하지만 한국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미국에서 살 때, 영어는 유창하지만 완전히 미국인이 될 수 없는 소수민족으로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반면 한국에서 살 때는, 외모는 한국인이지만 한국어를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혼종적인 정체성은 코드 스위칭 중 문장내 코드 스위칭과 문장간 코드 스위칭으로 나타나고 피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2.1. 코드 스위칭

4.2.1.1 문장 내 코드 스위칭

*Memories of My Ghost Brother*에서처럼 *Fugitive Visions*에서도 문장내 코드 스위칭은 자주 일어난다. 그중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8) *Umma*, my Korean mother, told me how I was born...
- (9) My mother’s genetic gift to me is natural *ssankapul*, the coveted

double eyelids obtainable to most only by surgery.

- (10) Inside *noraebangs* and *sulchips* we are making slow violence upon our bodies
- (11) Your father was an *ajeossi*.
Your mother was an *ajumma*. Ajummas live for hiking, picnics, children, and their ajumma friend. At the market, she always haggles for the best prices.

(8)은 ‘엄마’를 로마자 *Umma*로 표기하고 의미를 영어로 *my Korean mother*라고 설명한 형태이다. (9)는 ‘쌍꺼풀’을 로마자 *ssankapul*로 표기하고 *the coveted double eyelids*로 설명하고 있다. 문장내 코드 스위칭은 주로 문화특정 항목이나 가족관계 또는 감탄사 등이 많이 쓰이는데 쌍꺼풀처럼 일반 어휘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10)에 사용된 *noraebangs*, *sulchips*와 (11)에 사용된 *ajeossi*, *Ajummas*의 경우,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 한국어를 모르는 독자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Ajummas*의 경우처럼, 처음 나오는 한국어는 이탤릭체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올 경우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각각의 예를 『덧없는 환영들』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8') 엄마(*umma*), 나의 한국 엄마는 ... 태어난 때의 일을 들려주었다.
- (9') 보통은 수술을 해서 만드는 탐나는 쌍꺼풀(*ssangkpul*)을 엄마에게서 물려받았다.
- (10') 노래방(*noraebang*)과 술집(*sulchip*)에 들어가... 제 몸에 느릿한 폭력을 가한다.
- (11') 너의 아버지는 아저씨(*ajeossi*)였다.
너의 어머니는 아줌마(*ajumma*)였다. 아줌마는 등산, 소풍, 자식들, 역시 같은 아줌마인 친구들 때문에 산다.

(8')에서 (11')까지의 번역 방법은 같다. ST에서 사용한 로마자를 우선 한국어로 번역한 다음, 바로 뒤에 각각의 한국어 로마자 표기를 이탤릭체로 적어주었다. (11')의 경우처럼 앞에서 이탤릭체로 적어 준 어휘는 그 다음에 다시 나올 경우 이탤릭체를 표기하지 않는다. 이탤릭체 로마자 표기는 코드 스위칭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목표 독자는 텍스트를 읽을 때 로마자 표기가 낯설어 보이고 일반 한국어 소설 텍스트, 즉 비번역 텍스트와 좀

다르다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될 것이다. 왜 여기에 로마자 표기를 넣어두었을까 하고. 그러다가 읽고 있는 책이 번역본이라는 점을 떠올리고 영어로 쓰여 있는 ST에서 한국어를 로마자 표기로 전경화 했을 것이라는 점을 떠올릴 수 있다. 서술자나 주인공이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어도 사용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서술자의 문화적 혼란과 언어적 혼란을 표출하는 코드 스위칭 현상을 TT에 반영함으로써, 한국어를 아는 민족으로서의 동질감과 정체성 혼란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1.2 문장간 코드 스위칭

*Fugitive Visions*에서는 문장간 코드 스위칭 현상만 나타나고 문장외 코드 스위칭은 나타나지 않는다. 문장간 코드 스위칭은 영어와 한국어, 한자, 라틴어, 이탈리아어로 코드 스위칭이 일어난다.

- (12) Later, when my Korean mother died, he [her husband] said, “You have to accept that your mother is dead.”

어머니 보고 싶어
Mother, I miss you.

- (13) Koreans are, well, straightforward people. That means they say it right to your face.

—Wah! Yeppeunaeyo! Wow! You’re pretty!
—You are really skinny. You look better in your picture.
—Pabo-ya! You’re stupid!

- (14) Presto Agitatissimo e Molto Accentuato

(12)는 영어와 한국어 간에 코드 스위칭이 일어났다. 이처럼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지 않고 직접 한국어로 표기한 경우는 텍스트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다. (13)은 영어와 한국어(로마자 표기)간에 코드 스위칭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 또는 로마자 표기를 한 다음 영어권 독자를 위해 영어로 다시 표기 하였다. (14)는 음악용어로 이탈리아어이다. 문장은 아니지만 소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문장간 코드 스위칭(영어-이탈리아)으로 분류하였다. 서술은 영어로 되어 있는 반면 소제목은 모두 이탈리아어이다. 서술자가 피아노를 전공하였

기에 이탈리아어 또는 라틴어 음악 관련 용어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되는 번역을 『덧없는 환영들』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나중에 한국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지.”

어머니 보고 싶어

Mother, I miss you.

(13') 한국인은, 뭐랄까, 직선적인 사람들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사람 면전에서 할 말 다 한다는 뜻이다.

—와, 예쁘네요(Wah! Yeppeunaeyo)!

—진짜 말랐네요. 사진이 더 낫네.

—바보야(Pabo-ya)!

(14') 프레스토 아지타티시모 에 몰토 아첸투아토

Presto Agitatissimo e Molto Accentuato,

빠르고 격렬하게 강한 강세를 주어가며

(12')는 한국어로 번역한 다음, “어머니 보고 싶어”에서는 ST 그대로 한국어와 영어를 나란히 표기하였다. (13')은 한국어로 번역을 한 뒤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를 함께 병행함으로써 ST가 단일 언어로 서술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었다. (14')는 음차 번역을 하고 이탈리아어를 병기한 후 한국어로 의미를 설명해주었다. 원천텍스트처럼 ‘나’의 정체성 중 하나가 피아노와 관련되었다는 점도 부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덧없는 환영들』에서는 여러 언어를 혼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한국인으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입양된 서술자의 혼종적 정체성을 전경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번역양상 비교 및 논의

5.1 분석결과

*Memories of My Ghost Brother*와 *Fugitive Visions*에서 코드 스위칭 현상은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피진 현상은 *Memories of My Ghost Brother*에서만 나타났다. 이 코드 스위칭이나 피진 등을 통해서 서술자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혼종적이라고 여긴다는 점이 드러났다. 즉 서술자는 자기 자신을 미국인이면서 한국인으로 여기며 한국계 미국인이거나 한국인에게 유대감 또는 연대감을 느낀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클링거(Klinger 2015)의 주장 즉, 코드 스위칭은 서술자의 세계관과는 무관하다는 견해와는 다른 결과이다. 문학 텍스트에서는 서술자의 세계관이나 관점이 중요한데, 이러한 서술자의 세계관이나 관점은 코드 스위칭과 결합되므로 코드 스위칭 또한 번역의 대상이다.

*Memories of My Ghost Brother*에서 나타난 세 종류의 코드 스위칭 현상 즉 문장내 코드 스위칭, 문장간 코드 스위칭, 문장외 코드 스위칭이 TT인 『고스트 브라더』에서 모두 사라졌다. 한편 영어-일본어 피진과 영어-한국어 피진은 반영이 되어 번역이 되었지만, *mahmi*는 엄마로만 번역되어 언어 접촉 현상이 사라졌다. 반면 *Fugitive Visions*에서 나타난 문장내 코드 스위칭과 문장간 코드 스위칭은 『덧없는 환영들』에 반영되었다. 『덧없는 환영들』에서 문장내 코드 스위칭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한 다음 괄호 안에 ST의 이탤릭체 로마자를 병기하였다. 이는 서술자가 가지고 있는 미국인/한국인이라는 혼종적 정체성을 번역하기 위한 번역가의 시도로 읽힌다. 문장간 코드 스위칭의 경우, 영어-한국어 또는 영어-이탈리아어의 스위칭은 TT에서 다언어를 모두 표기하되 언어의 위치를 바꾼 경우도 있었고 언어의 위치가 동일한 경우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덧없는 환영들』은 서술자의 혼종적인 정체성이 언어를 통해 명확히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고스트 브라더』에서는 혼종적인 언어의 효과, 즉 코드 스위칭을 통해 서술자 또는 등장인물의 혼종적인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으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독자와 공감대나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영어-한국어의 코드 스위칭을 번역하면 한국어-한국어가 되므로 코드 스위칭 현상이 삭제된다. 따라서 번역가는 다른 번역전략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번역에 개입하고 번역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본다. 이 점에 있어 『덧없는 환영들』의 경우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 하겠다.

혼종성을 번역하기 위해 『덧없는 환영들』에서 사용한 전략을 활용하면, (예 1)을 ‘엄마 피부가 상놈(*sangnom*) 피부라고’로 번역할 수 있다. 번역문에서 완

벽한 코드 스위칭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sangnom*이 표기된 이유를 독자가 생각하려고 잠시 독서를 멈출 수 있다. 그러다가 읽고 있는 소설은 번역된 소설이며 원본은 영어로 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저자가 영어로 서술하면서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떠올릴 수 있다. 즉, ST에서는 영어와 한국어가 같이 사용되었으며 서술자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점을 재인식할 수 있다. 번역가의 개입을 통해 독자는 ST의 미학적 측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5)와 (예6)의 경우에서 영어와 독어의 코드 스위칭을 번역할 때 영어는 한국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는 한국어로 번역한 다음, 괄호 안에 독일어를 표기하면 된다. 또한 『고스트 브라더』에서 독특하게 사용된 *mahmi*의 경우도 ‘엄마’라고 번역하는 대신 ‘엄마(*mahmi*)’로 번역할 수 있다.

목표독자들은 한국어로 번역된 소설을 읽을 때 한국어가 매끄럽게 번역이 되었다 할지라도 소설의 배경이나 등장인물의 이름 등이 외래적이고 낯설어 번역본을 읽고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스트 브라더』처럼 한국을 배경으로 한국인 등장인물이 나올 경우 번역본을 읽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다. 책 겉표지에 번역가라는 이름만 없다면 마치 한국인 작가가 쓴 원문처럼 읽힐 수 있다. 번역본인 느낌을 주기 위해 일부러 한국어를 어색하게 번역함으로써 번역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덧없는 환영들』에서처럼 ST에 나타난 코드 스위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번역가가 정체성이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의 상징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학작품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을 표현하거나 이념을 충분히 해석할 수 없게 된다(Ibáñez 2008: 55). 따라서 코드 스위칭이나 피진 등의 혼종적 언어가 등장인물의 혼종적인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5.2 번역가의 목소리

허만스(Hermans 2010: 198)⁴⁾는 번역가가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하는 경우 즉, 텍스트에 자신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정통적인 문학작품 등을 현대에 번역할 때처럼 특정한

4) 허만스의 이 논문이 처음 실린 곳은 Target(1996: 23-48)임.

역사나 문화가 대체되는 경우이다. 번역된 텍스트는 원본의 내포독자에 ‘두 번째’ 내포독자가 첨가되어, 이중의 독자가 내포된다. 일반적으로 번역가들은 원본의 내포독자를 지우게 되는데 원본의 내포독자를 지우지 않고 두 번째 독자를 위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번역가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 두 번째는 자기 반영(self-reflexivity)과 자기 지시성(self-referentiality)의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의어나 언어유희 등 번역이 불가능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독자에게 읽고 있는 텍스트가 번역된 텍스트임을 상기시킴으로써 즉, 괄호나 주석을 넣음으로써 번역가가 명시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ST의 문맥상 외국어 등이 나오는 ‘문맥의 중층성(contextual over-determination)’인 경우이다. 외국어가 나오는 경우에 번역가가 각주로 처리하여 번역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세 가지 경우를 비추어 보면 『고스트 브라더』의 경우는 ST의 내포독자를 지우고 마치 번역이 아닌 것처럼 TT의 내포독자만 상정하였다. 반면 『덧없는 환영들』에서는 ST에 나타난 혼종적인 언어 즉 코드 스위칭을 TT에도 반영함으로써 ST의 내포독자를 지우지 않고 번역된 텍스트임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텍스트에 외국어가 나오는 세 번째의 경우, 허만스는 각주를 넣어 번역가의 목소리를 내도록 제시했지만 『덧없는 환영들』의 번역가는 각주 대신 본문에 외국어를 모두 실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고스트 브라더』의 번역가는 그 어떤 방법도 사용하지 않고 한국어 로마자를 모두 삭제하는 방법을 택했다.

번역가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이 세 가지 경우는 곧 번역가가 권한을 부여받은 곳이니 당연히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먼데이(Munday 2008: 15)도 허만스가 제시한 세 가지 경우가 번역가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부분이라 강조한다. 번역가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번역된 텍스트도 원문처럼...탈중심적이며 혼성적이고 다성적”(Hermans 2002: 11)일 수 있다.

『고스트 브라더』처럼 저자의 목소리만 내고 번역가의 목소리를 숨기는 번역양상은 번역가의 권리나 번역가의 힘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티모츠코(Tymoczko 2007: 197-198)도 번역가는 단순히 단일어를 사용하는 자아와 타자의 만남을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기존의 지배적인 번역의 관점은 단일어 공동체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었지만 다언어와 문화적 혼종성은 이

리한 관점에 문제를 제기한다. 즉, 번역은 혼종적인 문화나 국가가 자체의 혼종성과 조화를 이루며 국가의 정체성을 세우도록 길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번역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받았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혼종적인 정체성과 혼종적인 언어의 관계를 *Memories of My Ghost Brother, Fugitive Visions*와 『고스트 브라더』, 『덧없는 환영들』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고스트 브라더』에서는 코드 스위칭과 피진 등의 혼종적인 언어 현상이 사라져, 서술자나 등장인물이 경험하는 혼종적 정체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덧없는 환영들』에서는 혼종적인 언어 현상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서술자가 갈등하는 정체성을 명시화했다.

이 두 소설의 중심 이야기는 서술자가 경험한 혼란스러운 정체성이다. 이러한 경험은 코드 스위칭이나 피진 등의 다언어 형태로 나타난 것이므로, 이러한 혼종적 언어를 번역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고스트 브라더』와는 달리 『덧없는 환영들』에서는 영어-한국어의 코드 스위칭을 한국어로 번역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표기를 명시하거나 외국어인 경우에는 외국어를 그대로 표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코드 스위칭 현상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번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목소리를 냄으로써 원천 텍스트의 주제이자 상징적인 가치 즉, 서술자나 등장인물의 혼종적인 정체성을 전경화 했다고 판단된다.

『덧없는 환영들』에서 사용한 번역 방법은 어려운 작업이 아니므로, 코드 스위칭 등의 다언어가 번역되었는지의 여부는 번역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점점 다문화, 다언어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단일 언어 번역이라는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번역이 꼭 한 언어를 다른 한 언어로 옮기는 작업만은 아닌 것이다. 또한 문학번역에서 코드 스위칭이나 피진 등이 정체성이나 이념, 민족성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재원 외 옮김 (2001) 『사회언어학』, 서울: 박이정 (Bernard Spolsky (1998) *Sociolinguistics*,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 선영아 (2015) 「다언어 글쓰기와 번역의 문제」, 『인문논총』 72(1): 293-324.
- 한미애 (2014) 「김용익 단편소설의 문화번역과 자가번역에 나타난 혼종성」, 『번역학연구』 15(3): 303-329.
- Appel, René and Muysken, Pieter (2005) *Language Contact and Bilingualism*,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 Arcia, Ulises Franco (2012) ‘Translating Multilingual Texts: The Case of “Strictly Professional” in Killing Me Softly. Morir Amando by Francisco Ibáñez-Carrasco’, *Mutatis Mutandis* 5(1): 65-85.
- Bandia, Paul (2008) *Translation as Reparation: Writing and Translation in Postcolonial Africa*, Manchester and New York: St. Jerome.
- Black, Elizabeth (2006) *Pragmatic Stylistic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 Chan, Leo Tak-Hung (2002) ‘Translating Bilinguality: Theorizing Translation in the Post-Babelian Era’, *The Translator* 8(1): 49-72.
- Coulmas, Florian (ed.) (1998) *The Handbook of Sociolinguistics*, Oxford & Cambridge: Blackwell.
- Crisafulli, Edoardo (2002) ‘The Quest for an Eclectic Methodology of Translation Description’, in Theo Hermans (ed.) (2002) *Crosscultural Transgressions*, Manchester: St. Jerome.
- Delabastita, Dirk and Grutman, Rainier (2005) ‘Fictional Representations of Multilingualism and Translation’, *Linguistica Antverpiensia New Series* 4: 11-34.
- Farahzad, Farzaneh and Monfared, Bahareh Ghanbari (2010) ‘Hybridity in Immigration Literature and Translated’, <http://www.translationdirectory.com/articles/article2277.php>.
- Halliday, Michael A. K. (1978) *Language as Social Semiotic: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London: Edward Arnold.

- Hermans, Theo (2002) 'Paradoxes and Aporias in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in Alessandra Riccardi (ed.) (2002) *Translation Studies: Perspectives an Emerging Discipli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Hermans, Theo (2010) 'Translator's Voice in Translated Narrative', in Mona Baker (ed.) *Critical Readings in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Ibáñez, Beatriz Penas (2008) 'The Identitarian Function of Language and the Narrative Fictional Text: Problematizing Identity Transferral In Translation Per Se', in Micaela Muñoz-Calvo et al. (eds.) *New Trends in Translation and Cultural Identity*,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 Klinger, Susanne (2015) *Translation and Linguistic Hybridity: Constructing World-View*,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Mabule, D. R. (2015) 'What is this? Is It Code Switching, Code Mixing or Language Alternating?', *Journal of Educational and Social Research* 5(1): 339-350.
- Meylaerts, Reine (2013) 'Multilingualism as a Challenge for Translation Studies', in Carmen Millan and Francesca Bartrina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Abingdon & New York: Routledge, 519-533.
- Munday, Jeremy (2008) *Style and Ideology in Translatio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Noussi, Marie Chantale Mofin (2009) 'Translation, Multilingualism, and Linguistic Hybridity', in Petra Rüdiger and Konrad Gross (eds.) (2009) *Translation of Cultures*, Amsterdam and New York: Rodopi.
- Schäffner, Christina and Adab, Beverly (2001) 'The Idea of the Hybrid Text in Translation: Contact as Conflict', in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2(2): 167-180.
- Shafiq, Muna (2006) 'Linguistic Hybridity in Gloria Anzaldúa's Borderlands, Antonia D'Alfonso's Avril ou L'anti-passion, and Hiromi Goto's Chorus

- of Mushrooms’, in Madelena Gonzalez and Francine Tolron (eds.) (2006) *Translating Identity and the Identity of Translation*,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 Singh, Amardeep (2009) <https://www.scribd.com/document/198717049/Amardeep-Singh-Mimicry-and-Hybridity-in-Plain-English>.
- Snell-Hornby, Mary (2006)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Tymoczko, Maria (2007) *Enlarging Translation, Empowered Translators*, Manchester and Kinderhook: St. Jerome.
- Vizcaino, Maria Jose Carcia (2005) ‘Translating Code-Switching in Chicano Fiction’, *Translation Studies in the New Millennium: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3: 111-121.
- Wardhaugh, Ronald (2006)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5th ed. Oxford: Blackwell.

<분석 텍스트>

- 문상화 옮김 (2005) 『고스트 브라더』, 서울: 문학과의식.
- 이일수 옮김 (2013) 『덧없는 환영들』, 파주: 창비.
- Fenkl, Heinz insu (2005) *Memories of My Ghost Brother*, New York: Bo-Leaf.
- Trenka, Jane Jeong (2009) *Fugitive Visions: an Adoptee's Return to Korea*, Saint Paul: Graywolf Press.

[Abstract]

**Translating Hybrid Identity and Hybrid Language in
*My Ghost Brother and Fugitive Visions***

Han, Mi-ae · Choe, Euiyon
(Dongguk University_Seou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hybrid identity and hybrid language—pidgins, three kinds of code switching, and so on—are translated in the target texts of *My Ghost Brother* and *Fugitive Visions*, and to discuss how a translator should present herself to express the complex identity of a narrator or a character in the target text. The analysis shows that hybrid language, especially code-switching, is reflected in the target text of *Fugitive Visions*, while not reflected in the target text of *My Ghost Brother*. As a result, it can be said that the translator of *Fugitive Visions* played an activist role in manifesting the translator's voice and the conflicting identity of the narrator. His method of translation of the code-switching is that Romanized Korean words or foreign words in the source text are translated into "Korean (Romanized Korean or foreign words)" in the target text. Since it is not difficult to use the method, whether code switching is translated is connected with the perception and conception of translation. Therefore, we need to expand the concept of monolingual translation and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translation of hybrid language, especially in literary translation which are closely related with identity, ideology and ethnicity.

▶ Key Words: code-switching, pidgin, multilingualism, antilanguage, translator's voice

한미애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전공

hanmarian@dongguk.edu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비평

조의연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전공 교수

choey@dongguk.edu

관심분야: 번역이론, 화용론

논문투고일: 2017년 7월 22일

심사완료일: 2017년 9월 9일

게재확정일: 2017년 9월 10일